

###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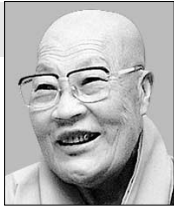
### 각 종단 봉축법어(무순)

##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 모든 고통 편안케 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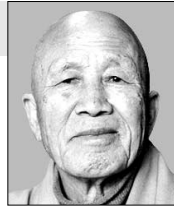
#####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약인정좌일수유(若人精坐一須臾)  
승조하사칠보탑(勝造河沙七寶塔)  
보탑필경화위진(寶塔畢竟化爲塵)  
일념정심성정가(一念靜心成正覺)  
만약 어떤 이가 1수유를 정좌해 있다면  
모래로써 칠보탑을 지음보다 나으리다.  
보탑은 필경 변화하여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고요한 마음은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그 중심인 성품자리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땅의 중생들에게 바른 생각, 바른 길,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니다.

#### 어둠천지 광명 얻도다

##### 총화종 종정 동광 스님



세존강림세간래(世尊降臨世間來)  
암흑천지대광명(暗黑天地大光明)  
일체중생득활력(一切衆生得活力)  
중생합락원성취(衆生合樂願成就)  
세존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어두운 천지가 광명을 얻었도다  
일체 중생이 활력을 얻으니  
만중생이 즐거움을 더하고 소원을 성취하리도다.

#### 자비로써 부처 이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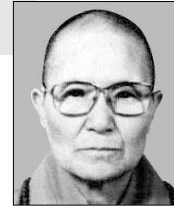
##### 원용종 종정 일공 스님



자비의 근본은 타인의 행복을 빌고 남의 불행은 나의 고난과 불행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행 실천의 적(敵)은 자아의 아집(我執)과 아리(我利), 아욕(我慾)에 의하여 소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파하고 대자유인의 상락야정의 어귀에 귀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만을 위하고 자신만이 잘 사는 길이 중생이요 타인을 위한 삶을 여는 것이 부처의 지혜입니다. 자비가 어찌 타인만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이 또한 해명의 지혜라 할 것입니다.  
자리이타행을 몸소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만이 부처를 이루는 길이요 상구보리 화하중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몸은 고요 공이며 무상일진대 정진수행 아니하고 어찌 여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 우렁찬 법음 온 우주에

##### 보문종 종정 혜안 스님



물질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오욕락의 꿈의 단맛을 지속적으로 탐미하기 위하여 감각적인 '나'의 허상에만 사로잡혀 남을 이해하며 더불어 함께 살기보다 무시하고 시기하며 시시비비로 개인의 번민과 사회의 갈등, 나아가 국제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일시적 충족은 다시 새로운 욕망을 부릅니다. 소욕지족하는 삶의 의미를 깊이 새겨 부질없는 허망한 삶으로 일관했던 타성적인 삶을 청산하는 뜻깊은 부처님오신날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을 계기로 무감각한 삶과 결별하는 심기일전의 연등을 밝힙시다. 톰비나의 외침처럼 부처님을 닮아가는 보살행에 매진하는 서원의 등을 밝힙시다.

#### 화합으로 상처 치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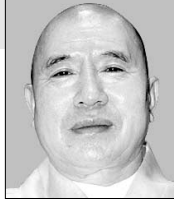
##### 총지종 종령대행 우승 중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뜻은, 일체중생을 고택으로부터 해탈시키고자 함이요, 중생들에게 드리워진 무명의 그늘을 환하게 밝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미혹과 고난, 다툼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여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부처님 시현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아실현의 길을 열어 주셨고, 또 모든 중생들에게 정각의 근본인 불성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와 '너'라는 분별심과 이기심, 아집과 편견, 시기와 질투, 원망심과 간담심으로 가득찬 나를 버리고, 크고 동글며 자비로 가득찬 마음으로 회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극락정토 함께 만들자

#####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



저 허공에 떠있는 태양이 차별없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온 누리 중생들에게 밝게 비취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과거에 비해 눈부신 발전을 해왔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희생과 헌신, 소외와 배척, 갈등이 상존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극의 시대를 접고 크게 반성하고 각성하여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사회, 문화와 복지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광명이 빛나는 오늘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높이 들어 어두웠던 대지를, 불행했던 어제를 행복한 내일로 만들어 갑시다.

#### 이기심 놓고 평화 나누자

#####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불탄지일대사인연(佛誕之一大事因緣)  
번뇌단해장보리생(煩惱斷盡菩提生)  
사에세척지상정토(娑羅洗滌地上淨土)  
속령통일세민영락(速令統一世民永樂)  
시묵조지기요요(是默照之機要)  
석존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근본 목적은 중생들의 번뇌와 무명을 단절하고 지혜와 보리를 증장시켜 지상정토를 세우고 중생들이 영원한 안락을 얻고자 함입니다.  
남북 평화통일을 빨리 이루어 세계 인류가 다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이 부처님이 오신 참 뜻입니다. 고요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목조선의 지혜광명의 일승지 요법이라 하였습니다.

#### 견성성불 문을 여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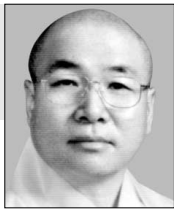
##### 열반종 종정 해곡



산하대지가 포효하면서  
꽃비 내리며 한빛의 방광  
고고하게 나투시었네.  
천상천상에 유아독존 님  
일체 중생들의 생로병사 인연의 운회  
탐진치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  
시다르타 태자로 출가 고행하여  
견성성불의 대도의 문을 여나니  
일체의 중생 성불길 자비의 보살로 인도하신 날  
우리 중생도 모두 님처럼 부처님과 같이 성불하는 날  
오! 부처님 나투신 날

#### 마음열고 실천하는 삶

##### 대각종 종정대행 만칭 스님



계율을 잘 지켰을 때 선정을 얻을 수 있고, 선정을 얻었을 때 지혜를 발하고, 지혜를 발했을 때 해탈과 해탈지경을 얻어 무상불도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계·정·혜의 행을 갖추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이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정을 닦는 이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며, 지혜를 구하는 이는 애욕에 매이지 않으므로 결집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마음이 저절로 열립니다. 중생의 몸으로 해탈의 불법을 만났으니, 청정한 마음을 닦고 실천하는 삶을 생활화 합시다.

#### 집집마다 태평가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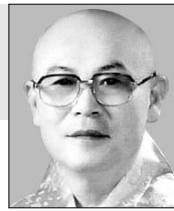
##### 해동종 종정 해봉 스님



오늘날 우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힘에 의한 질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라는 것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잘나적인 것이어서, 화합이 없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희생의 대상이 힘을 행사하는 자신 스스로가 될 때 필연적으로 자멸해가는 우리 인류의 앞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해야 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집과 독선을 떠난 화합의 공존으로 가는 기틀인 내 마음을 찾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 법의 등불로 무명 걷자

##### 무량종 종정대행 혜안 스님



사월 초파일,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은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곁에 항상 있다하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부처를 만날 수 없고, 부처와 멀리 떨어져 있다하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부처님 곁에 항상 있다고 하였습니다.  
탐욕에 불성과 본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 없는 청정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잘못된 현실을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배푸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 날마다 부처님 오신날

##### 선각종 종정 정영 스님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꼭 오늘날 오신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제,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십니다. 부처님은 땅 하늘 할 것없이 우주에 다니 오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날이 모두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기 부처님, 보살 부처님, 사장 부처님, 거지 부처님, 아픈 부처님, 배고픈 부처님도 만났습니다.  
이렇듯 언제나 부처님은 오시고 모두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만나는 이 좋은날,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맞이할지 한 생각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 상생하는 새 역사를

##### 미륵종 종정 연화 스님



일대사 인연으로 사바세계에 나투시어  
위없는 진리를 깨달으사  
일체중생의 귀의처가 되신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옵시다.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여 왔던 망상을 지우고  
상생과 화합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아갑시다.  
허상에 매달리지 말고 자성을 일깨워 무명을 타파하고 불국정토인 정의사회를 건설해 갑시다.

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미얀마 정부 공식 승인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 협회**  
코리아기술교육종합대학  
극빈 청소년만이 입학이 허용되며,  
전 학생 전액 장학금 및 무료숙식 제공  
\* 미얀마 총리의 배려로 양곤에 1만평의 대지를 희사 받아 설립 신속 공사 중입니다.  
회장 겸 미얀마 명예대사  
**목탁혜은 홍파**  
TEL 02-338-0567 FAX 02-322-0170  
H·P 011-229-6061

- 불교의 나라 -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중국**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직영  
**전문 랜드**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 예스 굿 투어**  
대표이사 : 헤거 상영민 합장  
성지순례 : 02)365-7747  
H·P 011-9039-1239 / FAX 02)365-2994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기 2548년

##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현해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www.dongguk.edu](http://www.dongguk.edu)